

등산용품 유명브랜드 사은품 '우롱'

판매는 고가, 사은품은 저가 '이중잣대'

광주 대형아울렛 입점업체 관리 허술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에서 제공한 사은품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덤으로 받는 사은품일지라도 본사에서 제작한 매장 판매상품과 동일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어 "짜퉁 사은품"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이 해당 매장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검찰이 광주지역 L아울렛 2곳의 아웃도어 브랜드 B에서 보관중이던 사은품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은품은 정상상품과 달리 별도 제작된다"며 "이번 사은품 양말도 본사의 허락하에 외부업체에서 제작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등산용품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장 판매 상품과 사은품을 본사로 부터 공급받는다. 하지만 문제가 된 B 브랜드는 제작단가를 낮추기 위해 본사의 허락하에 매장 점주가 외부업체에서 사은품 양말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광주에서 등산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우리 브랜드의 경우 매장 판매상품과 사은품은 모두 본사로 부터 공급받는다"며 "일반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사은품만 별도로 외부업체에서 제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고객들 수준이 높아져 질이 낮은 제품을 사은품으로 내놓았을 경우 고객들로부터 바로 항의를 받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평소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자주 구매했던 박수현(여·33·북구 운암동)씨는 "비싸도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사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을 이용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가 검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물건을 많이 사준 고객에 고맙다고 주는 사은품인데 본사가 만든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외부업체가 만든 저가품이라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L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해당 브랜드의 본사와 점주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사가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며 "양말 사은품을 일종의 OEM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유통업체 "100원 팔면 물류비 7원"

유가 등 상승...업체 70% "전년보다 증가"

국내 유통업체들은 100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물류비비용으로 7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업체 554곳을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물류 효율성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업체 평균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6.9%로 나타났다. 이는 100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물류비용으로 7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업체별로는 전자상거래(10.0%), 슈퍼마켓(6.8%), 할인점(4.0%), 백화점(3.6%), 아울렛(3.2%) 순으로 물류비가 높았다.

규모별로는 중소 유통업체군(7.4%)의 물류비용이 대형 유통업체군(3.8%)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유통업체 10곳 중 7곳(68.4%)은 지난해보다 물류비용 투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변동 없다'와 '감소했다'는 답은 각각 23.5%, 8.0%로 집계됐다.

물류비가 늘어난 이유(복수 응답)로는 유가 상승(85.8%), 운송비 증가(55.9%), 인건비 상승(41.2%) 등을 꼽았다.

유통업체들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물류업무(복수응답)는 판매 전후 고객서비스 관련 판매물류(84.1%), 창고·재고관리·운송 관련 사내물류(66.4%), 폐기·회수·반품 관련 역물류(46.3%) 등을 꼽았다.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자금 및 세금지원(31.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물류 공동화·정보화·표준화 관련 정책 지원(26.2%), 물류현장 전문가 육성 지원(15.3%), 지식가능 물류전환 제도 및 사업 시행(12.1%) 등이 뒤를 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리인하로 이자부담 2조 감소

1인당 월 1만원...기업 1곳당 年 65만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이자 부담이 2조원 줄어든다. 예금이자 수입은 약 4000억원 감소한다.

당국은 은행들로부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운용계획을 받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내려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연간 2조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주(借主)별로는 가계가 1조원, 중소기업이 7000억원, 대기업이 30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가계의 이자부담 감소액을 변동금리 대출자(950만명 추정)로 나누면 1인당 연간 10만5000원, 매월 약 1만

원씩 대출이자를 덜 낸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140만개이므로 기업 1곳당 이자부담 감소폭은 연간 65만원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뿐 아니라 예금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예금 600조원 가운데 회전식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당장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게 약 15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인하폭을 그대로 적용하면 3750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셈이다.

다른 상품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게 많아 아직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광운-별교제일고·나주상고 취업 협약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오른쪽 두번째)은 13일 오전 별교제일고등학교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과 별교제일고등학교(교장 김명호), 나주상고(교장 양윤자)와 특성화고 산학협력 취업 지원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은 전남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전남도교육청과 별교제일고, 나주상고는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의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 일정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던 지난주 코스피는 주요 지지선인 1800선을 한때 하회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다시 확대됐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유럽 사태에 이어 글로벌 경기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무 단계로 강등하면서 재정위기가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또다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악화일로를 걷던 유럽사태가 일단 중기적인 해법에 어느 정도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금융위기 당시와 버금가는 주요국들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제한적 반등 염두 단기투자 효과 자동차·지주사·제약업종 등 유망

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보다 글로벌 경기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셋째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기대된다. 넷째, 국내 주식시장은 연금의 매수강도가 강화되고, 주식형 펀드의 자금유입이 재개되는 등 수급상 지수 하방 경직성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무 단계로 강등하면서 재정위기가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또다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악화일로를 걷던 유럽사태가 일단 중기적인 해법에 어느 정도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금융위기 당시와 버금가는 주요국들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장이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되었으며, 3/4분기 이익개선 기대감이 타 업종 대비 우월하다는 점이 감점이다. 자동차 업종은 최근 파업과 하반기 치열해질 경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가격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가격 매력도가 높아져 있다. 이익변동성이 작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지주사 및 제약업종도 변동성 장세에서 단기 트레이딩 대상으로 유망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한우 600g 2+1 드려요"

광주 축산농협 27일까지

"한우고기 600g 2팩을 사면 1팩을 공짜로 드립니다."

광주 축산농협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매일 9시부터 화동 분점 하나로 마트와 주월동 한우직매장에서 한군 공짜 할인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우암소 고기소비를 확대해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한우산업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불고기·국거리·장조림용 1등급 암소 한우고기 2근(600g 2팩)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매일 300명 한정으로 1근(600g 1팩)을 공짜로 준다.

/송기동기자 song@

"하루 1만5천원이면 유럽 로밍"

KT '보다폰 패스포트' 서비스

KT는 하루 1만5000원에 유럽 국가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최대 86% 저렴한 음성 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올레모바일 보다폰(Vodafone) 패스포트' 로밍 서비스를 내놨다고 15일 밝혔다.

'보다폰 패스포트' 가입자는 유럽 12개국(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알바니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아일랜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스페인)과,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G·와이파이(Wi-fi) 등 무선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분당 500원에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있다.

/연합뉴스



"부가세 신고 힘써주세요"

서광주세무서(서장 이주한)는 최근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 교육센터에서 2012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광주·나주지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8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광주 세무서 제공〉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에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전기요금(용량별)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 날짜 태양광센터입니다. 해당지역에서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상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의 1필지 (전남지방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